

친구 우정의 징표로 심은 은행나무

★

지정번호

전주-9-1-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전주

수령

423년

수고

27m

흉고둘레

6,4m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13

35° 48′ 46.63″ N

127° 09′ 25.30″ E

전주향교가 지어질 당시 심은 보호수(전주-9-1-3) 은행나무는 향교 내에 여러 그루가 각기 달리 자라고 있다. 각각의 은행나무는 모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 가을이면 냄새가 고약하다. 명륜당 옆의 은행나무의 나이는 423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27m, 가슴높이둘레는 64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정도이다. 이 은행나무는 할머니 나무라 부르고, 인근의 은행나무는 할아버지 나무라 불린다. 원줄기는 우뚝 솟아 있으며, 높이 3m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진 후 높이 5m 정도에서 다시 3갈래의 가지 줄기를 내어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줄기 중간의 고사한 가지 줄기는 군데군데에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향교 안쪽이기 때문에 담장 등의 설치가 없어 답압이 심한 상태이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전하는 이야기는 친구와 관련이 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다. 그

들 중 3명은 가난하고, 2명은 부자였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향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이 향교에는 5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친구 5명은 각자 자기 나무를 정해 놓고 가꾸면서 서로의 우정을 다졌다. 그리고 부자 친구들은 가난한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면서 우정을 더욱 키워 나갔다. 친구들이 각자 지정한 은행나무는 5그루 중 3그루만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는 가난한 친구들이 가꾸는 나무였다.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3그루는 늘 받기만 하던 가난한 친구 셋이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늘 베풀었던 친구 두 사람은 죽어서 친구들이 열매를 맺어 베푸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였다. 주민들의 일부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김해동이란 사람이 암나무 옆에 수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다.

